

광주시 어설피 행정엔...SRF 운영사에 2100억 물어줄 판

청정 빛고을, 나주 SRF 시설운영중단에 운영 보조비용 78억원 요청 시,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절차...6차례 심리 걸치며 2100억대로 증액

광주시가 정책판단 실수로 광주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시설 운영사에 막대한 운영비를 물어줄 위기에 몰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주식회사 청정 빛고을과 광주 SRF 운영비용 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정 빛고을은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연료 공급을 목적으로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엔씨) 등이 출자해 2013년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광주시는 청정 빛고을과 15년(2017년부터 2032년까지)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고형폐기물연료(SRF)로 만들어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 판매해 수익을 내는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나주지역민의 반대로 나주시가 열병합 발전소 사용승인을 거부해 2017년 12월부터 4년여 동안 가동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청정빛고을은 파산위기를 이유로 광주시에 운영비용 보조비용 78억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운영비용 보조는 협약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급을 거부했다.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이 맺은 협약상 사용자 운영비용이나 사용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정부 정책이나 법령이 변경된 경우', '광주시 귀책사유로 운영 중단이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등 3가지였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2023년 2월 청정빛고을은 광주시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 처리 사용자 중재'를 요청했고 같은해 6월 광주시는 응했다.

청정빛고을은 중재신청 당시 78억원을 요구했지만, 6차례 심리를 거치면서 운영보조비용을 2100억원대로 증액했다.

지난 3월 청정빛고을이 증액 신청을 했고 광주시가 2달 가량 소명을 했지만, 지난 5월 대한상사중재원은 2100억대의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시는 지난달 20일이 되어서야 청정빛고을과 중재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중인 포스코 이엔씨에

중재절차를 종료하고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제안하면서 3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광주시는 청정빛고을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의 단심으로 내린 결과를 수용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보통 쌍방 당사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광주시의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광주시가 해당시설은 생활 밀접시설이라는 점에서 쓰레기 대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중재에 응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판결이 나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단일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광주시가 법리판단으로 귀책사유가 없다면 소송으로 진행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단순히 빠른 해결만을 고집해 문제가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이날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순천시가 스카이큐브 분쟁 당시 조정안에 대한 공개를 통해 여론조성을 하고 대응한 점을 거론하며 광주시의 비공개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다면 중재를 받아들이면 안됐다"면서 "중재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신속한 정보 공개로 시민들에게 불합리함을 알려 줬음에도 비공개 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 사안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론 절차를 밟아 대응할 방침이다.

정현운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장은 "대기업의 법기술에 당한 것 같다"면서 "공공재정에, 또 시민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서구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선포

광주 서구의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선포식이 30일 오전 풍암동 서범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선포식에 참석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점포 상인과 주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허가 7개소 2.6GW 규모 심의 통과

총 21.3GW로 전국 61% 규모...글로벌 풍력 업계 관심 집중

전남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글로벌 풍력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남 해상풍력 산업의 위상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난 27일 개최한 '제 313차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심의 결과, 전남 서해안 일대 2.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허가받은 발전사업 규모(59개소·18.7GW)에다, 이번 심의 통과 규모(7개소·2.6GW)가 더해지면 전남에서는 총 21.3GW 규모의 발전사업허가가 됐다. 전남도가 애초 글로벌 해상풍력 전진 기지로 도약하기 위해 목표했던 30GW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전국 발전허가량 34.8GW의 61%를 차지

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해상풍력 최적지임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가 이번 허가한 발전사업은 신안 블루자은·블루임자·블루신·블루비금1,2, 신안 케이원드파워, 여수 이순신 등 7개다. 크레도 오프쇼어사가 신청한 신안 블루 풍력발전사업(5건)은 400MW씩 모두 2GW다. KCH가 추진하는 신안 케이원드파워 사업 규모는 323MW, 담원드오프쇼어의 발전 용량(여수 이순신)은 345MW다.

발전사업 허가 뿐 아니라 사업 운영을 시작한 곳도 적지 않다.

신안 자은도(96MW) 해상풍력 단지는 지난 5월 사업 운영에 들어갔고 영광 약수(4.3MW) 해상풍력 발전기는 지난 4월 준공식까지 열렸다.

이외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신안 우이(400MW),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일대 영광 안마(532MW),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일대 완도 금일(600MW)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사업 운영을 위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일대 영광 낙월(365MW) 발전단지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호남권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미래산업 중심지로 키운다는 구상에 따라 글로벌 풍력기업의 전남 진출 등 해상풍력산업의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보급 의지에 따라 해상풍력, AI슈퍼클러스터 조성 등 전남의 에너지 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나주·함평 산단, 환경개선 나선다

공모 선정...국비 84억원 확보

여수·나주·함평 산업단지에 국비 84억원 투입돼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3차 공모사업'에 여수·나주·함평 3개 산업단지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산단 거리 조성, 노후 공장 리뉴얼 등 산업단지의 근로·생활·문화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됐다.

여수 오천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국비 4억원)은 상근 인력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10곳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시설 개선, 공장 외관 정비, 녹지 환경 조성 등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으로 진행된다.

나주 동수오량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국비 20억원)은 산단에 특화 거리 조성,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등 교통 환경 개선으로 추진된다. 산단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강화를 기대된다.

함평 빛그린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국비 60억원)은 근로자를 위한 휴식, 문화, 체육 기능이 복합된 공간 조성으로 청년층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기업들, 코리아 엑스포 파리지 487만달러 수출상담

광주시가 파리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엑스포 인 파리(Korea Expo in Paris 2025)'에서 총 487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은 지역기업 6개사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엑스포 인 파리(Korea Expo in Paris 2025)'에 참가해 광주 공동관을 운영했다.

광주관에서는 제로웰(공기청정기 등 에어가전), 센도리(공기순환기), 유니컴퍼니(영화상카

메라), 티아이파인터내셔널(두피케어기), 스위치온(조명기구), 2월의산(산전철기 자개보석함) 등의 지역 기업들이 참가해 유럽 소비자들에게 광주 K-제품의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선보이고 총 487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이끌어냈다.

이 기간 총 3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으며, 참가기업들은 향후 정식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지역 기업들이 이번 엑

스포에서 참가함으로써 유럽시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지 수요를 직접 파악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기술력을 갖춘 광주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회째를 맞은 '파리 코리아 엑스포'는 한류 콘텐츠와 대한민국 제품을 결합한 복합문화형 수출전시회로, 203개 기업이 360여개 부스를 운영하며 3만2341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